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2일 화요일 (음 4월 7일) 제17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5.9 **총선 대선** D-7

윤곽 드러난 대결구도... 승패는 여전히 안갯속

1강 · 2중 구도... 보수층 표심이 최대 변수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대선을 앞두고 큰 윤곽은 드러나고 있지만 승패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지지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변수 차단에 열을 올리는 반면, 추격자들은 대선판을 흔들만한 변수 찾기에 한창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격차를 벌리며 1위에 여유를 갖게 된 문재인 후보는 필승 카드를 찾기보다는 필패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다만 아들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의 확산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국민의당에서 끝까지 이를 놓고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지나오면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분노한 촛불 민심을 고려한다면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신중모드' 돌입 · 안철수 '개혁공동정부' 로 승부수 보수 후보들 완주 의지로 반문 3자 단일화 가능성 '희박' 파장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문 후보 스스로의 말실수도 삼가해야 할 부분이다. 언변이 유려하지 않은 문 후보는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질문 공세에 실언을 한 바 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발언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비판을 받는 한편 유세지역마다 동성애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문 후보에 대한 공세가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문 후보 검증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끝났다"고 자신하면서 "내부적으로 돌발 변수를 줄이고 다른 후보들간 단일화 등 외부 변수

서 공동정부 구성과 경제민주화, 임기 단축 개혁을 모색했던 김정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했다. 김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개혁공동정부 준비위가 8일 남은 대선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흩어진 중도보수층 표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 가능성은 반반이다. 하지만 유동적인 표심을 돌리기에는 2%가 부족하다. 중도보수층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보수 진보정당이 공정한 환경에서 정권창출에 도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차기 대선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보수층 표심이 막판 누구를 지지할지 여부다. 주요 5당 대선후보 TV토론을 거치면서 문재인 vs 안철수 양강구도는 사실상 붕괴됐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대선전은 1강(문재인, 40% 안팎) 2중(안철수·홍준표, 20% 안팎) 구도로 재편되면서 보수층 표심의 향배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보수층 표심은 현재 안철수·홍준표 후보로 양분된 상태다. 이대로 가면 대선승리를 헌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대 변수는 역시 반(反)문재인 3자 단일화다. 물론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 모두 대선완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최대 변수는 반(反)문재인 단일화에 따른 보수층 결집 현상"이라면서 "사전투표 이전까지 극적으로 성사될 경우 보수층이 결집해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 수 있다. 다만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면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인재용 기자

안중범 "특검, 삼성 진술하라 회유" 주장 특검 "사실 아니다" 반박

안중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불기소를 언급하면서 삼성 관련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삼성 관련 언급조차 안했다"며 맞받아쳤다. 안 전 수석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재판에서 뇌물 30차 공판에서 "특검 수사가 70일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2가지 강한 요구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삼성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과 30권 업무수첩의 증거 제출에 대해 동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압박의)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며 "나는 굉장히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검은 내 와이프가 박채운씨로부터 가방과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아내도 구속시키겠다'고 압박했다"며 "끝까지 버텼는데, 나중에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회유까지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단 한 번이라도 삼성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다른 검사가 했다고 주장하시겠지만, 특검 전체 명을 걸고 확인 작업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것은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국정농단 전반기에 관여도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삼성과 관련해 진술을 요구했다는 등의 안 전 수석 발언은 이 뇌물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선거 여론조사 결과 내일부터 공표 금지

도선관위, 주의 당부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오는 3일부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대선 후보자 지지 선언 1일 '문재인을 지지하는 전북여성 1101명' (가칭)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후보, 든든한 대통령이 될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왼쪽) 같은 날 강현욱 전 전북지사도 "안철수 후보의 승리는 정권교체 뿐 아니라 사실 전북도의 승리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인민당 안철수 대통령후보 지지선언

올해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27% ↑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이 지난해 27% 증가에 이어 올해에도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또한 군산~중국 일조(르자오) 간 컨테이너선 신규항로 개설로 컨테이너 화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항 컨테이너는 1분기에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만 3,529TEU를 처리했다. 회사별로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주)이 73% 증가한 5,906TEU를

중국 있는 컨테이너선 항로 개설 도내 업체 물류비 절감 등 기대 도의회, 컨테이너 화물 지원 인센티브 자동차까지 확대 처리했으며, 석도국제해리(주)는 7,623TEU를 처리해 5%가 증가했다. 전북도는 군산해수청, 군산시, 선사, 하역사 등과 민관 합동으로 군산항의 부두시설·항로·인센티브를 업체에

대선후보자 토론회 · 전북 일정

- ◇대선후보 6차 토론회(선관위 3차)
일시: 5월 2일(화) 저녁 8시~10시
중계: KBS, MBC
토론회: 사회
- ◇안철수 전북방문
일시: 3일(수)
내용: 김제 금산사, 전주한옥마을, 군산, 익산지역 지지 유세

의회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

군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장수 번암 봉화산